사 설

참여불교세계대회 의미와 성과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지난 7월 21부터 25일에 걸쳐 열린 이번 대회는 용인 삼성휴먼센터에서 진행된 3일간의 분임토의, 양일간에 걸친 운문사 및 불국사 방문 등 한국문화순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참여불교란 보시와 인욕, 자비와 포용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유와 평등, 안락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실천운동이다.

사실 이러한 운동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전도선언문이나 대승보살사상 속에 이미 그 정신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교단의 권위화와 탈대중화는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반사적으로 등장한 운동이 참여불교다. 사실 종교적 가르침은 말 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참여불교는 말없는 실천을 중시하며, 그것이 자신의 해탈과 안락을 위하는 것이라 말한다.

2년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참여불교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이미 11차에 이르고 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참여불교운동가들이 많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불교계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진단이기도 하다. 많은 종단이 이번 대회를 정치적 내지 이념적 시각에서, 혹은 보수적 집단주의에 따라 매우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모처럼의 세계대회가 불교계 전반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깨달음을 찾는 불교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감정 뛰어넘은 청소년 불자들

영남과 호남의 청소년 불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만났다. 이들의 만남은 '지역감정'이라는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구태(舊態)'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란 점에서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다.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주의적 관습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호도되어 온 지역주의의 병폐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생각할 때이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과 대구 맑고향 기룹게 모임과 광주 실명나눔실천본부가 최근 주관한 영호남 청소년 불자들의 만남은 지역을 초월해 한 민족으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 만남에서 각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헌혈활동 등을 통해 생명 나눔의 실천행도 함께 했다니 거듭 박수를 보낼 일이다.

부처님은 '카스트'라는 오랜 제도의 타파를 주장했다. 부처님께서 탄생의 순간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선언했다는 것 또한 불교야 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뭇생명의 존귀함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르침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경과 생명일진데 거기에 지역감정이라는 그림자가 끼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이번 영호남 청소년들의 만남은 '만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만남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을 통해 꾸준하게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 보다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지역을 초월한 불심공동체가 폭넓게 형성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98년 멸빈징계자 5명 특별법따른 심사 적법"

조계종 법규위 애매한 판결…재심사 '길'은 열어둬

종헌 개정 필요성 논란 예상

월서호계원장은 불가입장 고수

98년 멸빈 징계자의 징계 확정 논란에 대해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한 심사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규위원회는 24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98년 멸빈 징계를 받고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했던 정우스님이 청구한 '특별법이 종헌 제1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별법에 계류 중이므로 징계효력이 유예 상태' 확인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규위원회는 심판 결정 주문에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해 징계받은 청구인에 대해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심사개시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심판결정은 정우스님이 청구한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법규위원장 천제스님은 "정우스님이 청구한 요청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결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묘한 사안인데다, 법규위원회에서 조차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주문내용은 특별법이 종헌 128조에 위배되지 않고, 또 징계유예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문구로 명시해놓지는 않았지만 정우스님의 청구를 법규위원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98년 멸빈자 문제를 종헌 개정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규위원 현각스님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각스님은 "특별법이 종헌 128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결론만 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심판 결정 주문에서 특별법에 의해 심리를 다시 해보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재심에서 멸빈 징계가 확정됐지만 특별법이 아직 유효하고 따라서 멸빈 징계자들이 특별법에 재심사를 청구했던만큼 특별법이 종헌에 위배되는지, 또 징계가 유예상태인지를 호계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를 요청했던 5명의 98년 멸빈 징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공이 법규위원회에서 호계원으로 넘어간 만큼 호계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종헌 개정 없이 98년 멸빈 징계자 문제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멸빈자 사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정치적 타협 없이 법적인 해석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법장스님, 종교지도자 청와대오찬 참석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24일 종교지도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 참석, 노무현 대통령 및 각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법장스님은 노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받았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새대표 백도웅 목사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새 대표에 백도웅 목사(KNCC 총무)가 선출됐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교로 구성된 KCRP는 23일 대한성공회 프란시스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 대표에 백도웅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선출했다.

백 목사는 1981년 2월 장로회신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87년 6월부터 97년 4월까지 산서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KNCC 총무를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본사사령

강신재 김은경 오유진
이동혁 한상희
命 취재부 기자
2003년 7월 26일

스리랑카 수재민돕기 사찰·불자 성금 잇달아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에 사찰과 불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총무원 집계에 따르면 쌍계사 5백만원, 한마음선원 3백만원, 제주 관음사가 1백만원 보내오는 등 22일 현재까지 모두 4천3백여만원이 모금됐다. 이밖에도 전국 각 교구본사는 각 말사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8월초까지 성금을 총무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교구본사별로 포교사단 구성

신행단체간 공조·교류 이뤄져야"

조계종, 포교사특별연수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7~20일 동국대 90주년기념관에서 서울·경기지역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백남석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집행위원장은 "교구본사별 지역 포교사단과 신도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청년회와 대학생회, 중고등학생회, 어린이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행단체간 공조와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불교 인재들의 배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또 "스님과 사찰의 지원이 따르지 않는 청년회, 대학 불교학생회 법회 현장에 포교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역포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연수에는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스님을 비롯해 김대중 포교사단 단장, 백남석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집행위원장 등 1백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고침 본지 431호 14면 '외로움도 씻어 드려요' 기사 가운데 혜종스님을 혜총스님으로 고칩니다. 또 17면 '덴마크 입양아들의 대모…' 기사 중 금강불교대 총무처장 월장스님을 금강대 총무처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동화사 四部大衆에게 드리는 글

民族의 靈山 八公山 동화사는 開山 1510년의 悠久한 歷史를 通해 韓國佛教를 主導한 高僧大德을 수없이 배출한 大本山이다. 近世 韓國佛教의 宗丈이셨던 石友 大禪師님은 淨化이후 初代宗正을 歷任하시고 동화사에서 入寂하셨다. 이에 禪師의 遺志를 繼承한 石友門徒는 佛祖의 慧命을 奉持함에 있어서 無我慈悲의 精神으로 民族과 地域佛教를 主導해온 것이 사실이다.

동화사는 眞際 法遠 祖室스님의 卓越하신 指導力으로 四部大衆이 本分事인 修行에 專念하고 있으며, 現 住持 知性스님은 就任 後 伽藍守護와 地域布教에 不撤晝夜 勞心焦思 한 바 任期 1년이 지난 현재 宗團 안팎으로부터 教區長으로서의 信望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동화사는 修行家風은 물론 教區行政에 있어서 寸步의 是非餘地가 없다. 그러나 現今에는 如法秩序에 反하는 不美스러운 일이 發生하는 緣故로 동화사를 中心으로 한 四部大衆이 混亂을 겪는 까닭에 우리門徒는 教區의 秩序를 어지럽힌 동화사 前 住持로부터 비롯된 一連의 사태에 실로 有感스럽게 생각하며 嚴重警告한다. 추후 더 이상의 社會的 憂慮와 指彈이 惹起되는 一切의 行爲는 容納하지 않는다. 우리 門徒는 佛弟子의 大義에서 現住持를 中心으로 相好協助하고 相互尊重하여 慈悲和合한다.

불기 2547년 7월 23일

석우문도 대표 현부

석우문도 일동

<알림> 설석우스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구합니다.

石友門徒會에서는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신 石友 大禪師 행장집을 간행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진 · 서간 · 법어 · 휘호 · 전법게 등 석우스님과 관계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사오니, 소장하고 계신분께서는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면 깨끗이 사용후 돌려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53-982-0101, 문도회 간사 011-831-4480(진담)